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(김철민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59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7. 20.

발 의 자 : 김철민 · 고영인 · 권인숙
김민철 · 민형배 · 박상혁
서동용 · 안민석 · 유동수
이병훈 · 이원욱 · 이정문
조응천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에는 무인 단속용 장비와 함께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기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, 보행자 신호기 설치 위치를 “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”로 규정하여 정작 신호기 설치가 필요한 횡단보도에는 설치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.

해당 규정에 따른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에는 신호기가 이미 설치된 곳이 많아 신규 설치 대상 횡단보도가 적은 반면, 실제 어린이의 통행이 잦은 횡단보도라도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가 아닌 경우 신호기 설치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임.

한편, 도로교통공단이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,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보의 수집 및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

의견도 있음.

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기 설치 위치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횡단보도의 신호기를 추가하고, 행정안전부장관이 어린이 보호구역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·관리 및 공개하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되, 필요한 정보는 시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, 교통약자인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보다 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2조제5항 및 제6항·제7항 신설 등).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5항제1호 중 “신호기”를 “신호기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횡단보도의 신호기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·관리 및 공개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·운영하여야 한다.

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구축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시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) ① ~ ④ (생략)	제12조(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.	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 상 횡단보도의 <u>신호기</u>	1. ----- ----- ----- -----신호기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횡단보도의 <u>신호기</u>
2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	2. ~ 4. (현행과 같음) ⑥ <u>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정보를 수집·관리 및 공개하기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·</u>
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운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구축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시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</u>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